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통향

## 경제 통향

## 기획특집



이태영 사장님

2011년 신묘년 새해 아침에...

KC그린홀딩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끼의 해, 신묘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선, 올해도 KC그린홀딩스 관계사 임직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모든 가정에 행운과 평화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세계 여러 지역이 폭설, 가뭄, 홍수 등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우려와 함께 녹색 성장과 녹색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 KC그린홀딩스는 2010년 KC코트렐의 투자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녹색/환경산업 전문 지주회사로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KC그린홀딩스는 환경 EPC (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사업, 환경 서비스 사업, 환경관련 제조 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사업을 확대시키고 새로운 녹색사업의 발굴에 좀더 집중하여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종합환경기획부를 설립하여 환경 컨설팅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은 물론 환경 서비스 분야의 사령탑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 환경 EPC사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미국 및 유럽시장에의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NOL-TEC Systems Inc.와 지분 투자를 통한 전략적 제휴를 맺어 신규 고객 확보 및 신규 사업 발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스페인의 Invall사와 국내 풍력사업 개발을 위하여 KC Invall Green Energy를 설립하여,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풍력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1년 KC그린홀딩스 각 사업부문 관계사의 사업계획을 종합하면 약 5,600억원에 달하는 매출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해 약 12%정도 신장된 목표로서 현재의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도전적인 목표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전 관계사의 유기적인 협력과 CC20, High-5 project 등 각 관계사의 혁신 활동을 통하여 무난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C그린홀딩스는 관계사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계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녹색 산업의 기회를 사업화하여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공헌하는 모범적인 사업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KC그린홀딩스는 2015년까지 1조원 규모의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명하고 건강한 녹색/환경 산업 지주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이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이 생각 납니다. KC그린홀딩스의 모든 관계사가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자발적인 리더십 그리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문화적 차이를 포용하고 관계사간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함께 성장하고 또 그 결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Global Green Business의 모범적인 Network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2011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Happy New Year!!!

대표이사 이 태영



##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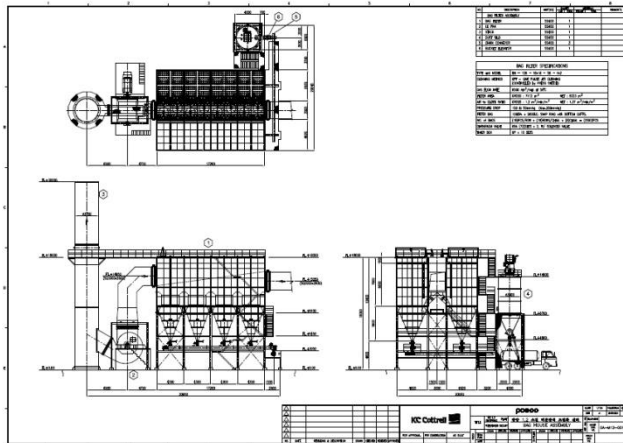
## [KC 코트렐] POSCO Bag filter수주

KC코트렐의 포스코 내에 Bag Filter 수주는 소형인 경우는 포스코 건설을 통하여 많은 실적이 있으나 포스코 직발주의 대형(5,000Am3/min 이상) Bag Filter 수주는 1997년 포항제철소 1고로 원료조 집진기 수주 이후 이번 **광양제철소 1~5소결 미분광석 조립화 설비 집진설비**가 처음입니다.

물론 설치 완료한 1~4 소결 청정설비 및 현재 설치 중인 5소결 청정설비에도 대용량의 탈황용 Bag Filter가 있으나 이번 수주는 청정설비 탈황용으로 순수하게 분진 처리용으로 설치한 Bag Filter로는 매우 오랫동안의 수주입니다.

그 동안 Bag Filter 수주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경쟁사의 수의 계약 또는 입찰 시에 경쟁력 부족으로 Bag Filter의 수주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수주가 더 의미 있는 수주로 기념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Bag Filter 수주를 기반으로 좀 더 경쟁력 있는 원가 분석을 통하여 다음에는 좀 더 많은 Bag Filter의 수주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C코트렐 제철사업부/광양사무소 최현규  
(hyungyu@kc-cottrell.com)



관련 도면

## [KC 코트렐] KEPCO Family 공정거래 협약식 및 동반성장 페스티벌

KC코트렐 이태영 사장님께서 12월21일 한국전력(서울 삼성동 본사)이 주최한 '2010 KEPCO FAMILY 공정거래 협약식 및 동반성장 페스티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전 김쌍수 사장을 비롯한 전력그룹사 사장단,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정준양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하였으며 김쌍수 사장은 대회사에서 "KEPCO는 2020년 해외매출규모 260억 달러의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협력 중소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고객동향'에 게재하겠습니다.

KC그린홀딩스 지원팀 김현주  
(hyunjoo@kcgreenholdings.com)



동반성장 페스티벌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 [KC 코트렐] 인천 『수산정수사업소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사업 추진 양해각서 체결

KC코트렐은 지난 12월 29일 인천 수산정수사업소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체결식에는 KC코트렐 이태영 사장님, 수산정수사업소의 조영하 본부장님, 그리고 한국남부발전의 이상호 본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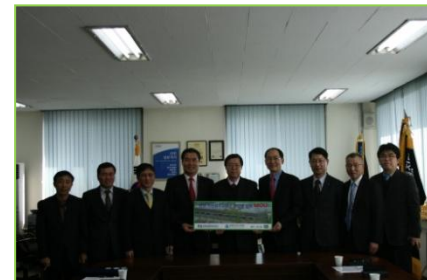
본 사업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수산정수사업소의 정수지 및 여과지 옥상을 활용하여 정수 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정수장 운영의 홍보, 교육 등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변화를 기반으로 한국남부발전의 사업참여와 더불어 향후 2011년 2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와 한국남부발전 간의 실시협약과 한국남부발전과 KC코트렐 간의 사업개발 체결 후, 2011년 3월에 태양광 발전소를 착공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C 코트렐 신재생에너지사업부 태양광사업팀  
이은정(eunjung@kc-cottrell.com)



△수산 정수장 태양광 건설사업 조감도



△MOU체결식

##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태양전지모듈을 설치한 안성유리전경

## [안성유리공업]안성유리 태양광 발전소 건설

안성유리는 지난 12월 14일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본 태양광 발전소는 2010년 10월 11일부터 2010년 11월 19일까지 40일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공장 지붕(면적 2,830㎡) 위에 고정식 박막형 태양 전지판을 이용한 지붕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서 총 발전용량은 178.024kWp으로 연간 약9천5백만원의 전기판매 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해 없는 친환경적인 태양광 발전을 시작함으로써 정부의 신 재생 에너지 정책에 동참하면서 친환경기업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에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안성유리공업(주) 기술지원 오자영 차장  
(jyoh@asglass.co.kr)



준공식후 다과회



준공식에 참석한 내외귀빈과 함께



태양광발전 준공식



태양광발전 Control Room

##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 [안성유리공업] 제 25회 유리 심포지움 논문발표

## “유리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2010년 12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유리 산업의 발전과 첨단유리에 대한 각종 연구 자료발표를 위한 제25회 유리 심포지움이 개최되었습니다.

당사 기술연구소 이선영 소장은 2011년 시행되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리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란 주제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에너지 절감방안, 사업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에 관하여 강연을 하였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 중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당사의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 전력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하는 효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안성유리공업(주) 기술연구소 배인규주임  
(ikbae@asglass.co.kr)



심포지움



## [Lodge Cottrell India Pvt. Ltd.] Nagai Thermal Power Project 수주

인도 Nagapattinam에 위치한 Nagai 화력발전소에 150MW 2개 unit에 대한 집진기 계약을 LCIN에서 수주하였습니다.

먼저, 1호기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고 추후에 2호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9.6 Crores 루피이며 2011년 10월경에 공사를 완료한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향후 Ansaldoaldie 프로젝트 수주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이며 LCIN의 인도 보일러 집진기 시장에 첫걸음 일 것입니다. 이번 수주는 또한 보일러 제조업체들에 대하여 LCIN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수주였다고 생각합니다.

Lodge Cottrell India Pvt. Ltd. Sankar Thakur  
(sankar@lodgecottrellpvt.com)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 [KC환경서비스] 2011년도 시무식

신묘년 새해 KC환경서비스는 1월 3일 오후 3시 본관 1층 회의실에서 고재영 사장님과 이재영 대표이사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전 직원이 모여 2011년도 시무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재영 사장님은 신년사를 통하여 ES DIVISION의 장기적인 사업전망과 KCES의 확보부지를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하셨으며, 특히 진취적인 경영, 일에 대한 몰입 그리고 시의 적절한 판단력을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KCES는 2011년도 경영목표로

1. 새로운 10년! KCES 제 2의 도약기를 준비하는 해
2. 무재해 2배수 달성 및 3배수 도전
3. 매출 100억 돌파

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KC환경서비스 이정식 팀장  
(jslee@kc-enviro.com)



## KC 인사동정

## [클레스트라 하우저만]

임영재 이사, 2011년 1월1일 상무로 승진, 축하드립니다!

## [안성유리공업]

▷ 운영지원팀 최호재 팀장이 정년 퇴임하였습니다.

▷ 경영기획팀 이봉형 팀장이 새로운 팀 "경영지원팀" 팀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 재경팀이 "재무관리팀"으로 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KC삼양정수]

KC삼양정수는 2011년을 시작으로, 새로이 담수화 사업 진출을 위해 기존의 기계장치팀, 혁신사업팀을 확대 개편하여 담수화사업팀(가칭)을 신설했습니다.

담수화 사업팀의 팀장은 김영진입니다.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 한전, 中企 경쟁력 강화에 발벗고 나선다

공정거래 협약식 및 동반성장 페스티벌 개최  
자금·기술·해외수출 지원확대 발표

한국전력이 대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상생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한국전력(KEPCO, 사장 김쌍수)은 21일 서울 삼성동 본사 한빛홀에서 김쌍수 사장을 비롯한 전력그룹사 사장단,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정준양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2010 KEPCO FAMILY 공정거래 협약식 및 동반성장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전 및 발전 6개사는 광명전기 등 108개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선포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자금지원 확대, 기술지원 및 보호활동 강화, 교육훈련 지원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자금지원 분야에서 한전은 자금지원 확대 및 대금결제 조건 개선을 통해 협력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방침으로 선금금 지급비율을 최고 50%에서 70%로 확대시켰다. 또한 협력사의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100% 현금결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보호 분야에서는 한전과 협력사간 협동 R&D 창출 기술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자료 임치제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보호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협력사의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경영혁신 및 환경경영 교육과정을 신설함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전문가 양성과정을 분기1회(총4회)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한전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및 경영지원을 위해 자사 기업수출지원팀을 동반성장 전담창구로 운영할 계획과 '수출촉진회' 확대, '수출화 기업 POOL' 운영, 해외 민간 네트워크와의 '비즈니스 매칭' 등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증대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전력신문 2010.12.21 [박진형 기자]

## 발전회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 지원 사항

## 1. 자금(금융)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 자금 지원
- 선금금 지원비율 운영

## 2. 대금 결제조건 개선

- 현금결제 비율 100% 지속유지

## 3. 기술(개발)지원, 품질개선 및 기술보호 활동강화

- 발전회사와 협력사간 공동 R&D 창출기술의 지식재산권 획득 협력

## 4. 인력, 교육훈련 지원

## 5. 동반성장 전담부서 설치 운영 및 지원

## 6. 기타 동반성장 지원 사항

- 시장개척단 등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적극 전개
- 수요예고제 및 발주예시제 적극 시행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 확대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 한국전력공사는 21일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한 '2010 KEPCO FAMILY 공정거래협약식 및 동반성장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左)과 협력사를 대표해 이재광 광명전기 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 [제철소식] 포스코패밀리 글로벌 환경경영 선포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환경경영 성과공개 등 추진... 걷기·고기·줄이기·모으기 운동 전개

포스코가 패밀리 차원의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한다.

포스코는 12월 27일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패밀리 글로벌 환경경영 선포식'을 열었다.



▶ 포스코는 12월 27일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패밀리 글로벌 환경경영'을 선포하고 패밀리 차원에서 환경 리스크에 대응해 글로벌 선도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패밀리 통합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왼쪽부터 박승대 대운 사장, 정동화 포스코건설 사장, 이주형 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정준양 회장, 이만의 환경부장관, 최종태 사장, 이동희 대우인터내셔널 부회장, 안중산 이엠테크 사장

행사에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정준양 회장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특수강,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등 출자사와 외주파트너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정준양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환경이슈가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두가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환경경영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이날 선포식에서 앞으로 경영전략의 핵심을 환경에 두고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해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생태 효율성 향상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환경경영 성과공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포스코는 이를 위해 정준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탄소보고서와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경영성과, 법규정보, 환경개선 사례를 공유해 국내외 출자사, 협력 중소기업, 외주파트너사 등 포스코패밀리의 환경부문 소통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포스코는 외주파트너사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린PCP(POSCO Certified Partner)' 자율 인증제도를 도입해 환경경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인증을 받은 외주파트너사와 협력 중소기업은 포스코 및 출자사와 거래할 때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포스코는 환경경영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걷기, 고기, 줄이기, 모으기' 4대 실천운동도 전개한다. ▷포스코 신문(12/30, 제 850호)

## 탄소배출권 조림사업 유엔 등록

포스코가 12월 3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우루과이 현지 조림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등록했다.

조림 탄소배출권 등록은 포스코가 국내 최초이고 세계에서는 18번째, 철강사 중에서는 최초다.

포스코는 2008년 12월 이사회에서 탄소배출권 확보와 회사의 친환경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남미 우루과이에 5500만 달러를 투자, 2만ha의 조림지를 매입해 탄소배출권 사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2009년 2월 포스코우루과이를 설립했다.

포스코우루과이는 본 사업 착수에 앞서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식재로 지난해 8월에 약 1000ha(약 300만 평) 규모 부지를 매입하고 현재까지 약 88만 그루의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었다.

포스코는 시험사업에 대한 CDM사업 유엔 등록에 앞서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열었다.

이어서 올해 우루과이 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탄소배출권 사업 등록을 신청했다.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시험식재 결과 우루과이는 타 국가에 비해 조림사업 환경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약 400만ha의 조림장려지가 있으며, 묘목과 식재 등 조림 전문업체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식재 1년 후 2.5m 이상 성장하여 수목생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림사업에 대해 법인세 및 재산세 등이 전액 감면된다.

우루과이 조림의 사업성이 우수하고 유엔에 탄소배출권을 등록함에 따라, 2013년까지 추가로 1만 9000ha를 구입하여 전체 규모를 2만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우루과이에 서울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조림지를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림 탄소배출권 사업은 A/R (Afforestation/Reforestation) CDM으로 불리며 신규 조림이나 재조림이 포함된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의해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가 예상됨에 따라 포스코는 조림 탄소배출권 사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조림 탄소배출권 사업을 인정받으려면 1990년부터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고 유엔 지정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조림 탄소배출권 사업은 2006년 중국 광시성에서 확보된 바 있고, 이후 2009년에 10건, 2010년에는 포스코를 포함해 7건이 승인되면서 최근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포스코 신문(12/09, 제847호)

### [현장은 지금포항·광양제철소] 설비 강건화로 '친환경 제철소' 구현

포스코는 제품 생산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비를 강건하게 하고, 친환경적인 제철소를 만들고자 전 직원이 창의적인 개선 아이디어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포스코신문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진화·발전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전하고자 한다.



▶발전소 굴뚝에 SNCR 장치 설치 중인 포항제철소(왼쪽), 안락비 7호점을 탄생시킨 광양 소결공장

### 포항 전동송풍설비 합리화 준공... 광양 철송집하장 신설 가동

▶고로용 전동송풍설비 합리화=포항제철소 동력과는 11월 30일 3·4고로용 전동송풍설비를 합리화 준공했다. 이번 합리화 공사를 통해 단일 계통으로 공급되던 보조기기의 전원을 송풍기별로 분리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SFC(Starting Frequency Converter) 기동장치를 이중화해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노후화된 변압기·차단기·전동기를 교체하고, 4고로에 산소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전소 탈질설비 설치=포항제철소 발전과는 11월 30일 발전소 탈질설비 설치공사를 마쳤다. 이번 공사는 포항제철소 내 발전소 굴뚝에서 기준치 이상의 질소산화물이 발견되는 경우 요소수를 자동 분사시켜 질소산화물을 수증기와 질소로 분리 제거하는 SNCR(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무촉매환원법)라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번 SNCR 설치로 포항제철소는 2010년부터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준수하고, 친환경 제철소의 이미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철송집하장 신설=광양제철소 생산기술부는 11월 30일 출하제품 중 철도운송량 확대를 위한 철송집하장을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열연제품창고와 연결된 철송집하장은 No.4 POL(Pickling Oiling Line: 산을 사용해 코일 표면의 스케일을 제거하는 공정) 신설공사로 인한 제품창고 저장능력 부족분을 만회하고, 점차 늘어나는 철도 운송량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준공됐다. 광양제철소는 이번 철송집하장 신설 가동으로 연간 38억여 원의 운송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안낙비 7호점 탄생**=광양제철소 소결공장은 11월 25일 안낙비 7호점을 탄생시켰다. 안낙비 7호점은 3소결 설비 중 광석에서 발생하는 더스트를 집진해 이송하는 설비다. 직원들은 3개월 동안 이 설비에 대한 개선활동을 실시, 해머를 이용한 관통장치를 설치해 작업부하를 줄인 것은 물론 설비환경을 깨끗이해 명품 설비로 탄생시켰다.

▶**표준문화 정착 슬로건 공모**=광양제철소 품질기술부는 11월 25일 박판검사와 정진호 씨의 '표준준수! 고객과의 소리 없는 약속입니다'라는 슬로건을 표준문화 정착 슬로건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이 외에도 우수작에 삼화산업 손용국 씨, 장려상에 프롬스 배선형 씨 등이 뽑혔다.

▶**용선온도 예측대회**=포항제철소 파이넥스2공장은 11월 10일부터 25일까지 조업요원 직무능력 향상과 기능 개발을 위해 용선온도 예측대회를 실시했다. 이 대회에서 박영희 씨가 개인 우승, C조 1반이 단체 우승을 차지했다.

▶**광양 2제강공장 준공 20주년**=광양제철소 2제강공장은 준공 20주년을 맞았다. 직원들은 1990년 11월 조업 시작 이래 20년 동안 최대 출강 신기록을 세우는 등 으뜸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만들어준 선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월 29일 홈커밍데이 행사를 실시해 20주년의 의미를 깊게 새겼다.  
▷포스코 신문(12/02, 제846호)

## 환율시장

2010년, 3대키워드 "유로화 불안, 아시아통화강세, 채권/금/엔 초강세"  
 2011년, 여전히 매력적인 원화, 외국인 포지션은 부담

## CONTENTS

인사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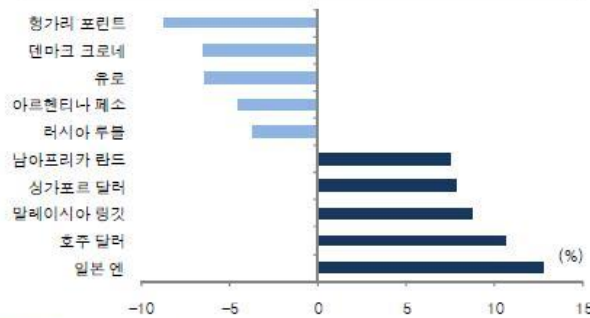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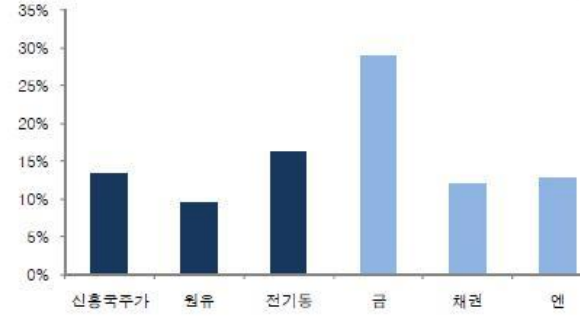
올해 상승률 상위-하위 통화들(대미달러 절상율)



SAMSUNG 삼성선물

자료 : Bloomberg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수익률 비교



자료 : Bloomberg, 신용국주가는 MSCI지수 기준

## &lt;2010년의 통화별 상승률 비교&gt;

## &lt;2010년의 위험자산 및 안전자산 수익률 비교&gt;

2010년 한 해 외환시장은 아래와 같은 핵심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 유로화 불안으로 새로운 국제통화체제 논의가 심화되었다. 양적완화로 흔들리는 달러에 유로화가 대체 통화로 인식되었으나 유로존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SDR과 같이 '멀티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통화체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더불어 대체통화로서 호주달러, 캐나다달러 등의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둘째, 상품통화 및 아시아통화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신흥국의 높은 성장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로 호주달러, 캐나다달러 등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신흥국 중에서는 재정상태가 건전하고 중국의 고성장에 수혜를 입은 아시아 통화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셋째, 채권/금/엔의 초강세를 들 수 있다. 양적완화를 재개해야 하는 선진국의 상황이 디플레이 우려를 낳으면서 이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 이들 자산에 대한 매수세가 유발되었다. 양적 완화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장세도 이들 자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주가 상승과 엔화 강세가 동반되는 현상도 나타나는 등 엔화와 주가의 역의 상관관계가 깨지기도 했다.

##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 2011년 원/달러 평균환율 전망

	1Q	2Q	3Q	4Q	연간
2009	1,148	1,286	1,239	1,168	1,276
2010	1,143	1,165	1,184	1,115 (F)	1,152 (F)
2011	1,100 (F)	1,080 (F)	1,070 (F)	1,030 (F)	1,070 (F)

2011년은 여전히 원화가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외국인들의 그동안의 매수포지션을 생각했을때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부진 속에 한국 경제의 상대적 견고함과 원화의 저평가 인식은 2011년에도 외국인이 원화자산 매입 의지를 불태울만하다. 유로존 재정문제, 여전히 불안한 국제금융시스템, 신흥국 물가 상승, 선진국의 과도한 부채 등 불안 요인이 존재하지만 2011년 세계 경제는 신흥국의 고성장과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완만한 경기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 세계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흑자국에 대한 통화절상 압력은 지속될 것이며,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의 지속은 상대적으로 펀더멘탈이 양호한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입 흐름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다. 미달러는 미국정부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경기부양의 노력이 가시화될 경우 양적완화에 의한 하락 압력이 약화될 수 있으나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와 재정적자 문제, 글로벌 보유통화 다변화 전략 등으로 장기 하락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의 자금유입기조가 지속되는한 원화절상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외국인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원화자산을 매입했으며, 투자이익도 막대하고, 채권투자에 대한 규제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의 원화자산 매수 강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경상흑자 규모가 올해의 절반 수준인 150억 달러로 줄어들면서 외국인의 외환시장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 영향력이 반드시 외국인이 의도대로 움직인다는 뜻은 아니다. 대외 불안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한국 금융시장의 교란이 재발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으나 대규모 원화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환헤지 비율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원화의 변동성이 두드러지게 높아질 가능성은 잠재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선물환 포지션 규제에 이어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은행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금 부과, 외은지점 선물환 한도 인하 등 추가 자본규제 도입을 통해 과도한 자본유출입의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향후 국민연금 해외주식투자자에 대한 환헤지 비율 인하 등 외국인 자금 유출입 방향과 정반대의 Flow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자본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병행,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원화 강세 흐름은 어렵다.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원화환율은 수출기업들에게 가격 경쟁력을 제공하고 있어 대외재원에 의한 환율 급등시 외국인에게는 원화자산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다.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 원자재 시장

## [열연] 수급전망 - 생산 3,351만톤-3천만톤 돌파

-스틸데일리 기사 요약 12-08

내 수 : 건설 수요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동차용 강판과 냉연 강관 등 수요 증가로 2010년대비 5.5% 증가한 3,341만톤으로 예상된다.

수 출 : 국내생산 증가 및 베트남 냉연공장 등 해외 공급기지 확충에 힘입어 505만 톤(7.7%↑) 예상

생 산 : 현대제철의 C열연 생산 본격화 및 포스코 포항 신에하 따른 증가, 동부제철 생산성 향상 등으로 3,351만 톤(14.4%↑), 사상 첫 3천만 톤 돌파 전망

수 입 : 국내 공급규모 급증에 따라 495만 톤(29.7%↓)으로 큰 폭 감소 예상

(단위 : 천톤, 전년비 %)

	2009	2010(추정)	2011(전망)
총 수 요	29,175 (-14.5)	36,347 (24.6)	38,460 (5.8)
내 수	24,997 (-18.0)	31,658 (26.6)	33,410 (5.5)
수 출	4,178 (15.1)	4,689 (12.2)	5,050 (7.7)
생 산	23,384 (-12.1)	29,304 (25.3)	33,510 (14.4)
수 입	5,791 (-23.0)	7,043 (21.6)	4,950 (-29.7)

## [냉연] 냉연업계, 1분기 유통공급량 줄인다

-급증한 냉연도금재 유통재고, 주요 제조회사 1분기 유통공급량 크게 줄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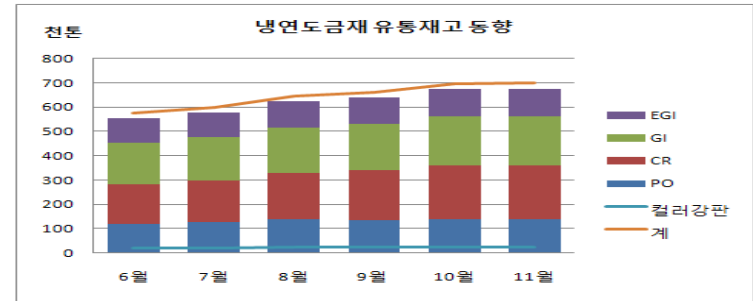
- 냉연유통업체 재고 처리에 "역점"

-스틸데일리 기사 요약 2011-01-04

냉연사들이 1분기 유통공급량을 줄이고 있다. 급증한 냉연도금재 유통재고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냉연도금재 유통재고는 70만 1,000톤으로 수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2월 대형 코일센터들을 비롯한 냉연유통업체들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저가 판매를 불사했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요가들 역시 소재 재고 증가를 부담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냉연사들은 내년 1분기 유통공급량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 연계 물량등 고정물량을 제외한 일반 유통판매 물량을 줄이고 있다. 냉연SSC들은 1분기 유통공급량 수급을 줄이고, 재고 판매에 역점을 두면서 보유 재고를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 [형강] 수급전망 - 설비투자 호조로 수요 395만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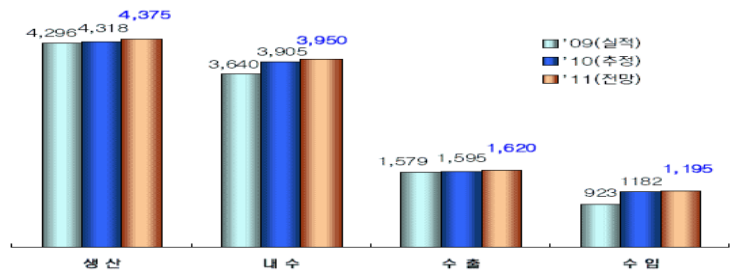
-스틸데일리 기사 요약 12-08

내 수 : SOC사업예산 축소 불구, 설비투자 호조 지속으로 395만 톤(전년대비 1.2%↑), 전년수준 유지 전망

수 출 : 주요국 재정정책 완화 따른 수출수요 감소 예상되나, 신흥국 설비투자 증가지속 등으로 162만 톤(1.6%↑) 전망

생 산 : 건설용 수요부진 불구, 기계용/조선용 건조세 배경으로 438만 톤(1.3%↑) 전망

수 입 : 건자재용 중심의 저가품 수입이 일정수준 지속되며 120만 톤(1.1%↑) 전망



## [STS] STS 유통시장, 서서히 판매단가 인상 적용할 것

- 2010년 연말까지는 현재 판매되는 가격 유지

- 1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단가 인상분 적용 위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

-스틸데일리 기사 요약 12-30

포스코의 1월 출하분 가격인상의 후속조치로 유통업계는 판매단가를 서서히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는 시장의 분위기를 지켜보는 가운데 최근 시중에 형성된 가격으로 판매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다. 유통업계는 열연보다는 냉연을 중심으로 가격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니켈가격의 강보합장이 유지된다면 1월부터는 단계적으로 가격인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구조상 지금 당장 가격 인상분을 적용해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판매 단가의 인상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0 Power-Gen 전시회를 다녀와서... (김재수 선임)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1

전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 산업 관련 전시회인 Power-Gen International 2010은 지난 12월 14일 ~ 16일, 3일간의 일정으로 Orlando에 위치한 Orange County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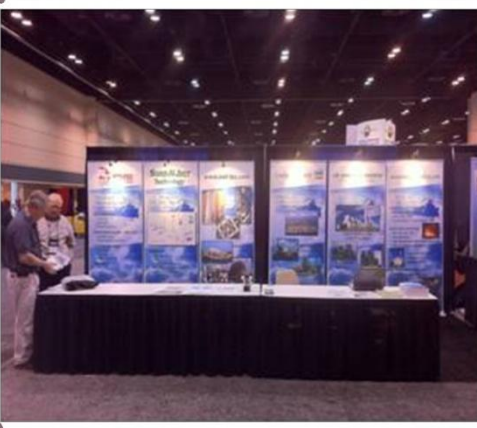
△전시회장

Power-Gen International은 매년 1,200 개 이상의 발전 산업 관련 회사가 참가하며, 평균 20,000명 정도의 방문객이 찾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계 관련자의 말에 의하면, "Power-Gen에서 보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할 정도로 관련 종사자들이 모두 모이는 행사라고 합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두산중공업이 대형 부스를 개설하고 Main Sponsor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렸으며, KOTRA 공동 부스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이 각자의 기술력을 알리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KC 네트워크에서는 Lodge Cottrell Inc.사와 Nol-Tec Systems Inc.사가 공동으로 참가하여 발전 환경 부문의 기술력을 알리고자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3일간 진행된 전시회에서는 안타깝지만 첫날에는 아주 활발하게 비즈니스가 진행된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미국 경기를 반영한다는 점과 1월 중순 확정 예정이던 환경 규제 안이 내년 4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발 뉴스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LCI,NTS 부스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통향

## 경제 통향

## 기획특집-1

다행히 날이 지나면서 방문객도 늘어나고 질의와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종합 APC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는 LCI의 APC 기술과 Nol-Tec의 건식 탈황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부스를 찾아주신 POSCO E&C의 전략 구매팀에서 탈황설비 관련 업체 발굴을 위해 오신 분께는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찾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NWL 사의 사장님이신 Mr. Helmut Herder 씨께서도 방문하셨습니다만, 안타깝게 사진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꼭 사진을 남겨서 "산타 클로스 사장님"의 모습을 KC 가족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선임



△LCI,NTS 부스



왼쪽부터 시계방향 Mr. Wayne Johnson, Mr. Vernon Hudalla, Mr. DY Seo, Mr. Jerry VanderWerff, Mr. Mike Widico, Mr. Dave VanArnam, Mr. Fabio Novelli, Mr. Mike Weyandt

전시회와 더불어 LCI와 NTS, NTE (Nol-Tec Europe) 간의 해외 영업 공조 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미국 내 발전 산업 시장의 동향을 보면서 미국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LCI의 일원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실감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윤곽을 잡는 데 중요한 시간이었으며, 새로 KC Family 가 된 Nol-Tec과의 사업 공동 개발 등에 대한 논의 또한 인수 합병 후의 시너지를 위한 중요한 업무였다고 생각합니다.

KC 본사에서 Power-Gen 참관차 오신 박일봉 이종영 선임님과 이역만리에서 상봉하는 감격의 순간을 가진 것도 잊을 수 없는 이벤트였습니다. 귀한 팩소주 보급도 감사 드립니다.....π



KC코트렐 발전민수 사업부 김재수 선임(jaesoo@kc-cottrell.com)

## 기획특집-두 번째 이야기

## 2010 연말정산 TIP

## 1.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올해부터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 공제율이 축소되어 소득공제금액 또한 줄어든다. 반면 직불/체크카드는 공제한도가 커져서 전략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신 분들의 소득공제액이 조금 더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 2.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대주의 명의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전액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3. 소득공제 연계 금융상품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금액의 최고 300만원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단, 10년 이상 가입, 만55세 이상부터 5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 4. 그 외 유의할 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 가능
-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 ▷6세 이하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 전액 교육비 공제 가능

## [2010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월세 소득공제 가능
- ♪ 미용성형,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 아님, 단,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약은 의료비 공제 가능
-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폐지
-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축소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통행

## 경제 통행

## 기획특집-2



- ▲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체크카드 사용이 소득공제액이 더 크다는 점이 올해 달라진 부분이다.

☆각 사 KC뉴스레터 대표 명단입니다 ^^☆



2011년을 맞이하여 더욱 풍성한 KC뉴스레터로 찾아 뵙기 위해 KC 네트워크 각 사에 통신원을 정하여 소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24개 사 기자들에게 많은 협조와 격려 부탁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KC뉴스레터팀 배수정, 신수경, 이보람, 유민정, 정희정, 홍기은, 김현주 올림



KC뉴스레터팀